

# 화학경기 부진에 플라스틱 호조

전경련, 9월 BSI 화학 88.9에 플라스틱 111.1 ... 전체전망 111.4

대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전망이 3개월만에 호전세로 돌아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꿈틀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월1일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월 BSI 전망치가 111.4를 기록해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 BSI 전망치는 6월 105.1 이후 7월 96.5, 8월 91.7로 2개월 연속 이어졌던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8월의 경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8월 BSI 실적치는 91.0을 기록해 5월 98.2, 6월 93.4, 7월 91.7에 이어 4개월 연속 기준치 아래로 떨어져 실제경기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 BSI 전망치는 경공업(106.3) 중 섬유(90.9)와 나무·목재 (87.5)는 부진을, 의복·가죽·신발(121.1)과 고무·플라스틱(111.1)은 호전을 예상했으며 중화학공업(108.8)은 철강(72.7)과 제약·화학제품(88.9)은 부진을, 정유(140.0)와 선박(157.1)은 호전을 전망했다.

섬유(90.9)는 업종의 장기불황을 반영해 내수부진, 중국 등 경쟁국 저가제품의 유입, 경쟁심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부진 지속을 전망했으며 실적(81.8) 또한 부진했으나 가중 전망지수(100.2)는 강보합을 나타냈다.

고무 및 플라스틱(111.1)은 내수회복의 기대로 호전을 전망했으나, 실적(66.7)은 상당히 부진했으며, 가중지수는 114.9로 호전을 전망했다.

제약 및 화학제품(88.9)은 중국, 인디아 등 경쟁국과의 가격경쟁 심화, 제약기업간 경쟁심화, 내수부진, 고유가로 인한 원료가 상승 등으로 부진을 전망했고, 실적(88.9) 또한 악화됐다.

정유(140.0)는 고유가에 따른 마진증대로 호전을 전망했으며, 실적(140.0) 또한 고유가와 휴가시즌 등의 영향으로 호전을 나타냈다.

내수는 추석 성수기 도래로 제조업(116.4), 비제조업(126.0) 모두 호조를 예상해 BSI 전망치가 119.8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소매업(160.9)과 의복·가죽·신발(131.6) 등이 큰 폭의 호전을 기대했다.

수출도 영상·음향·통신장비(142.9), 반도체·컴퓨터·전기(123.5) 등을 중심으로 호전이 예상돼 BSI 전망치가 105.4를 기록했다.

이밖에 자금사정(102.0), 투자(103.8), 채산성(108.6)은 100을 넘어 호전이 기대됐으나 고용(98.2)은 부진이 예상됐다.

<화학저널 2005/09/05>